CSED211: Malloc Lab report / 20230784 jaewonyu 유재원

1. 개요  
    본 과제는 간단한 malloc 계열 함수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간 및 속도 관점에서 성능을 올리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구현  
    Explicit list, LIFO policy, First fit 을 바탕으로 구현하였다.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시작하였다.  
     
    하나의 메모리 블록은 HEADER, PAYLOAD, FOOTER 으로 구성되며,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항상 PAYLOAD의 시작 부분을 가리킨다. PAYLOAD의 크기가 0일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포인터 2개를 PAYLOAD 부분에 저장할 수 있다. “다음”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저장된 위치를 FD, “이전”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저장된 위치를 BK 라고 하겠다. FD는 PAYLOAD의 시작 부분에, BK는 그것보다 WORD\_SIZE만큼 큰 부분에 위치한다.  
     
    위와 같이 보조 함수를 정의해 이용하였다. 각 함수에 대한 설명은 그때그때 하면 될 것 같다.  
     
    init 함수는 위와 같이 구현하였다. block 병합 시 heap의 가장 높은 주소 부분과 가장 낮은 주소 부분과는 병합되지 않아야 하므로, 그것을 위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만든다. 이 때 다른 코드와의 쉬운 연동을 위해 프롤로그는 헤더와 푸터를 모두 만들고, 에필로그는 헤더만 있으면 된다. 이후 PAYLOAD의 시작 주소가 8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heap의 첫 4바이트를 버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bin(free 블록을 모아두는 linked list의 root)의 주소로 이용하였다.  
     
    먼저 first-fit 규칙에 따라 블록을 탐색하는 방법은 위와 같다. bin에서 첫 블록의 포인터를 가져오고, 다음 블록으로 쭉 순회하며 블록을 찾으면 즉시 반환하는 것이 first-fit 이다. 순회를 적게 하기에 실행 속도 면에서 장점이 있는 방식이다. thru 점수가 높게 나온다.  
     
    bin에 특정 노드(block)을 삽입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는 malloc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고 데이터 구조에 대한 보조 함수이기에 free list에 node를 삽입/삭제하는 것이 잘 정의되었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coalesce 함수의 경우 free 된 block에 대하여 전/후에 free된 block이 있다면 병합하고, bin에 node를 추가하는 함수이다. 먼저 가장 간단히 전/후 블록이 모두 할당된 경우에는 병합할 필요도/병합할 수도 없기에 그저 노드를 추가하고 반환한다.  
     
    만약 후 블록만 비어있다면 후 블럭과, 전 블록만 비어있다면 전 블록과, 둘다 비어있다면 둘과 병합하는 부분이다. 이 또한 병합을 한다는 것만 중요해 보인다. 합치고, 헤더와 푸터를 조정해 주는 것이다. 이 때 병합된 그 덩어리가 bin에서 가장 앞에 위치하는 것이 LIFO의 특성에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서, 좋을 것 같아, 병합되는 전/후 블록들을 항상 bin에서 제거해준 뒤 다시 insert 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score 상으로는 1점의 차이도 나지 않았다.  
     
    heap을 워드 단위로 확장하는 함수이다. 확장은 정확히 말해 확장하는 사이즈의 크기를 가진 free block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프롤로그를 옮겨주어야 함을 잊으면 안된다.  
     
    free된 블록을 실제로 할당 상태로 바꾸는 함수이다. 할당할 때 만약 16(payload가 0이 아닌 8바이트 align 돼있는 블록이 가질 수 있는 최소 크기) 초과의 공간이 남는다면 해당 공간은 새로운 free block으로 만드는 작업을 겸한다.  
     
    실제로 malloc을 수행하는 함수이다.  
    정상적으로 init이 실행된다면 BIN\_ROOT 는 heap의 가장 낮은 주소를 가리키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nullptr이라면 아직 heap이 초기화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에 초기화를 진행해준다. 또한 만약 size가 0이라면 nullptr을 반환해준다.  
    case 최적화 부분은 잠시 넘어가고, malloc 의 순수 동작만 보면 find\_fit 함수로 최적의 블록을 찾아보고, 없으면 extend\_heap 함수로 충분한 크기의 heap block을 만든다. 이 때 sbrk 함수의 호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한번에 적어도 적당한 크기 이상의 block을 할당해준다. 그 적당한 크기는 (1 << 12) / 4 로 결정하였다. 1<<12 는 리눅스의 기본적인 page size이다. 이것은 메모리 공간과 실행 속도 사이의 trade-off 인데, 아마도 first-fit 방식이기에 실행 속도가 충분히 빠른 것으로 보여 page size를 4로 나눠주어 힙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작게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실제로 util 점수를 1~2점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후에 place 함수를 통해 실제로 할당 상태로 바꿔주어 반환한다. 이제 case 최적화 부분을 보자. binary가 붙은 trace 파일들의 util 점수가 유독 낮게 나와 확인해본 결과, 예를 들어 112 만큼의 크기를 쭉 할당한 뒤 한 개씩 건너뛰어가며 free 해주고, 이후 다시 128 크기로 malloc을 해 주주는 것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중간은 할당이 되어있기에 112 만큼의 free block이 쓰이지 못하고 남아있고, 새로 heap을 계속 늘려주어 할당하기에 util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라 판단, 해당 trace들을 위해 특별히 최적화를 진행해 준 것이다. 미리 128, 512 와 같은 사이즈로 할당을 시켜버려 free 후에 128, 512 사이즈로 할당할 때 bin의 원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파편화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꺼라 생각했고, 이는 실제로 util 점수를 4점 가량 상승시켰다.  
     
    free 함수의 경우 해당 블록을 free 상태가 되도록 header, footer을 조작하고 인접한 블록과 병합하는 작업만을 수행한다. coalesce 함수 내에서 해당 블록을 bin에 추가해줄 것이다.  
     
    realloc 부분을 보기 전에, checkheap 함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다.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구현된 checkheap 함수를 호출한다.  
     
    해당 함수는 보조 함수로, 해당 블록이 8바이트 얼라인이 맞는지, 헤더와 푸터가 일치하는지를 검사해주는 보조 함수이다.  
     
    해당 블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주는 함수이다. 헤더, 푸터 각각을 기준으로 크기, free 여부를 출력해 준다. 에필로그라면 즉 size가 0이라면 EOL을 출력해 준다.  
     
    위를 바탕으로 구성된 checkheap 함수는 다음과 같다. 힙의 가장 위에서부터 모든 블록을 순회하며 각 블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주는 함수이다. 이 프롤로그 / 에필로그 / 평범한 블록들을 나누어 처리를 해 준다.  
     
    realloc 부분의 시작 부분이다. malloc, free 를 그저 해 주면 되는 경우를 따로 처리한다.  
     
    만약 새 크기가 기존 크기 이하인 경우 상황이 두 개로 나뉜다. 기존 크기보다 16 을 초과해 작다면 남는 공간을 새로운 free block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 영역을 통째로 할당해 준다.  
     
    만약 다음 블록이 free 상태인데, 그 뒤에는 프롤로그가 존재한다면 heap을 늘려버린다. 이는 결국 다음 블록의 size를 키우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 경우 다음 if문의 경우인 다음 블록이 free 상태이고 두 블록을 합친 크기가 충분한 경우를 반드시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다음 블록이 확장되었든 아니면 원래부터 다음 블록이 free 상태이고 두 블록을 합친 크기가 충분하다든 그 블록과 병합을 시도한다. 이 때에도 병합하여도 충분한 공간이 남는다면 새로운 free 블록으로 만들어 준다. 생각해보니 이 때에는 병합이 절때 일어날 수 없으므로 병합 대신 bin에 추가만 해 주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의 경우가 모두 아니라면 슬슬 최적의 상황이 되기 어렵다.  
    위의 경우들이 모두 아니라면 이전 블록과 병합을 시도해본다. 이 때에는 데이터를 옮겨줄 때 출발지와 목적지의 메모리 영역이 겹치므로 memcpy는 정상적인 동작을 기대하기 힘들다. 해당 함수는 도착지와 목적지가 겹치지 않아야만 정상 동작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emmove 함수를 이용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용 가능할까 싶어 급히 plms를 통해 문의 결과 사용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구현해본 최적화이다. 무려 util 점수를 1점 올려주었다.  
    그렇게 데이터를 옮겨 준 후에 마찬가지로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새로운 free 블록으로, 그렇지 않다면 통째로 할당해준다.  
     
    이전, 이후가 모두 free 상태이고 세 블록을 합쳐야만 크기가 충분한 경우에 대한 처리이다. 이전의 두 경우를 합치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util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거의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malloc을 통해 메모리를 할당, 이 경우는 두 영역이 겹칠 리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memcpy 함수를 이용한다.
3. 결론  
    본 과제를 통해 동적 메모리 할당의 구조, 파편화 문제 등을 직접 경험해 보며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작성한 코드로 다음과 같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firstfit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탐색 시간이 적기에 thru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많은 경우에 나쁘지 않은 util 점수를 보이나, realloc 함수의 경우 trace 파일을 확인해본 결과 파편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util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4. 참고 문헌  
   <https://plms.postech.ac.kr/mod/ubfile/view.php?id=174902>  
   <https://plms.postech.ac.kr/mod/ubfile/view.php?id=175716>  
   CSAPP textbook